



최근 RBC비율 하락 원인과 시사점

김해식 연구위원, 조재린 연구위원

최근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금융당국의 자본규제 강화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감소임.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위험계수 상향 조정이 2016년 말까지 진행된 데 이어 2017년에는 금리연동형 계약과 변액보험에 대한 금리위험 산출기준 강화가 추진되고 있음. 가용자본의 경우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이익이 줄어들고 후순위채권 등의 발행비용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의 탄력적인 로드맵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보험회사도 기존 자본확충 수단에 제약이 커진 만큼, 보다 보수적으로 자본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최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 원인은 지속적인 자본규제 강화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조달 재원의 감소임.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지난 2년간 위험계수가 상향 적용되어 RBC 요구자본이 늘어나면서 보험회사는 가용자본¹⁾을 확충하여 RBC비율 하락을 최소화함.
 - 보험 및 금리위험에 이어 지난 12월에는 신용위험에도 더 높은 위험계수가 적용되면서 2016년 12월 보험회사 RBC비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²⁾
 - 그동안 보험회사는 저금리 환경에서 채권 가치 상승을 통한 채권평가이익과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발행함으로써 가용자본을 확충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평가이익 감소가 보험회사 RBC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됨.
-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 예고'를 통해 2017년 상반기부터 금리연동형 계약과 변액보험의 금리위험 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요구자본 산출 강화 방안을 추진함.

1) RBC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2) 장기손해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2016년 9월과 비교하여 12월에 적게는 20%p에서 많게는 80%p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이번 조치의 특징은 저금리 추세를 염두에 두고 금리연동형과 변액보험의 금리위험에 대하여 무위험수익률(= 공시이율 - 신용스프레드)과 금리시나리오를 적용한 시가기준의 지급여력평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있음.
- 특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계약의 경우 금리위험은 현행 공시이율에서 신용스프레드를 차감한 이자율 수준과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하여 산출하므로 보험회사의 금리위험에 대한 RBC 요구자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금리연동형 계약의 금리위험은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아져서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정도로 측정되는데,
 - 이때, 신용스프레드를 차감한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하므로 요구자본도 늘어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다른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금리연동형 계약의 요구자본이 크게 늘어나 보험회사 RBC비율(= 가용자본 / 요구자본)에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됨.

■ 그러나 금융당국의 요구자본 증가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확충 수단은 매우 제한적임.

- 현재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조달 원천에는 당기순익 및 이익잉여금,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채권 등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과 주식 발행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채권의 발행 비용이 상승하고, 평가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서 채권의 발행 및 평가이익을 가용자본을 확충하는 대안으로 삼기 어렵고 증자도 쉽지 않은 실정임.

■ 단기적인 금리 상승 환경에서 재무건전성 로드맵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고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는 자본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금융당국은 저금리 추세를 염두에 둔 로드맵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수익 관리와 보수적인 이익 유보를 통해 금융당국의 건전성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임. **kiri**